

#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단 조성 본격화

### 국토부 산업단지 계획 승인 따라 곧 보상 절차 착수 2024년까지 팔복동·동산동 일원 66만㎡ 2천억 투입

탄소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 전주시가 대일(對日) 무역적자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재산업의 국산화를 이끌 전진기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주시는 국토교통부가 '전주 탄소 소재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심의를 거쳐 산업단지 조성이 최종 승인된 만큼 향후 보상 절차를 시작으로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주 탄소 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24년까지 동산동과 고량동, 팔복동 일원 66만㎡(약 20만평)에 2000억여원을 들여 탄소 소재는 물론 최첨단 항공 부품, 신성장 분야 등 70여개의 기업, 10여개의 R&D(연구개발) 시설, 20여개의 지원시설을 갖추는 것이다.

탄소 국가산단은 최근 일본의 핵심소재 수출규제와 맞물려 탄소섬유의 급격한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탄소 소재 생산부터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전·후방 기업

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탄소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시는 특히 탄소 국가산단을 통해 관련 기업 집적화로 탄소 소재부터 완제품 생산 기업까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만큼 이에 대비해 소재 국산화 기술 개발과 인력양성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전주지역 탄소 관련 기업은 효성 첨단소재를 비롯해 총 97개사로 국가산단이 조성되면 추가로 70여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어서 모두 170여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전주는 국내 최초의 탄소 소재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비롯해 한국과학기술원 전북분원 탄소 융합 소재 연구센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북분원, 전북자동차기술원 탄소 융합연구실, 전북테크노파크 등 탄소 관련 연구기관들도

###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단 지형도



많다.

탄소 국가산단에는 10여개의 R&D(연구개발) 시설과 20여개의 지원시설이 추가 입주할 예정이어서 연구기관 집적화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전북지역 대학들도 탄소 산업 발전과 소재 국산화를 이뤘던 인재육성에 박차를 가

하고 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창업보육센터와 탄소 기술교육센터 외에도 전북대 유기 소재 파이버공학과와 고분자 나노공학과, 원광대 탄소 융합공학과, 전주대 탄소나노신소재공학과가 운영되고 있다.

시와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이력 산·학·연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엮어 대한민국 탄소 산업을 이끌어간다는 방침이다.

시가 이처럼 탄소 산업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대한민국이 반도체와 스마트폰, TV 등 전자제품 분야에서는 세계시장을 주도하는 강국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완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소재와 부품은 주로 일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국가산단 지정은 소재와 장비를 국산화해 완성품을 만들 수 있는 획기적인 진전"이라면서 "그간 전략적으로 육성해온 탄소 산업을 향후 첨단미래 사회의 핵심인 수소경제와 4차 산업으로 연결하기 위한 관련 인재양성에도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지난해 독서문화캠프 안내판.

### 순창군, '섬진강 무지개물고기' 독서문화캠프 정부 공모사업 선정 국비 확보 10·11월 개최

순창군이 '섬진강 무지개물고기'라는 참여형 독서문화캠프를 연다.

순창군에 따르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2019년도 독서문화캠프' 공모사업에 순창군립도서관이 도서관으로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최종 선정돼 국비 4500만원을 확보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19년 독서문화캠프에 순창군립도서관은 순창마을학교협동조합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응모했다.

섬진강 무지개물고기라는 캠프명으로 응모해 최종 선정된 군은 국비를 포함해 총 5000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이번 독서캠프를 열 계획이다.

'누가 시월의 별빛을 훑치는가'라는 주제로 열릴 이번 캠프는 천혜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섬진강 향가오토캠핑장에서 10월과 11월, 1박 2일 일정으로 순창지역 조순 및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배려 대상 청소년 120명을 선발해 진행된다.

순창군은 캠핑장 내 방갈로에 운문·산문·미술 창작활동과 논설문·방송대본·년론문 쓰기라는 6개 테마로 독서와 작문 활동교실을 만든다.

또 작가들이 상주해 참여자들과 함께 다채로운 독서와 작문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백일장대회를 열어 참가자들이 작성한 원고를 독립 출판해 전국의 공공도서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순창=정양근 기자 jyg@



### 정읍 내장상동 '디자인 거리' 탄생

#### 시, 12억 들여 보행자 중심 쾌적한 가로 경관 조성

정읍시는 보행자 중심의 쾌적하고 안전한 가로 경관 조성을 위한 '내장상동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내장상동 디자인거리(사진)는 미소지움 아파트 사거리에서 상동 롯데슈퍼까지 약 200m 구간에 걸쳐 총사업비 12억(국비

70%, 지방비 30%)을 투입해 조성했다.

전신주와 통신주를 지중화하고 보차도와 시설물을 개선하는 등 보행자 중심의 걷기 편한 거리로 대폭 변화시켰다.

지중화 사업은 정읍시와 한진, KT, 공사 등 여러 기관이 상호 협력해 추진했다.

거미줄처럼 얽혀 미관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하던 각종 전선을 지중화해 쾌적한 가로 경관 조성에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거리 곳곳에 설치된 벤치는 노약자 등 교통약자에게 쉼터 구실을 하고 있다.

자동차 등의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볼라드는 가로등 역할을 하며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보행 편의를 제공하며 걷고 싶은 거리로 탈바꿈 시켰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 고창군청·군민복지회관 등

#### 주요 공공시설 4곳에 설치

고창군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건강하고 사회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 충전기를 관공서 등 주요 공공시설 4곳에 설치했다고 3일 밝혔다.

군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과 거동 불편 어르신들이 주로 사용하는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등의 이용자를 위해 충전기 설치 사업을 추진했다.

유동인구가 많고 보장구 사용자의 동선을 고려해 고창군청, 고창군장애인복지관, 고창군민복지회관, 대한노인회 고창군지회 등 4곳에 충전기를 설치했다.

충전기는 보행 보조기구의 배터리를 동시에 2대 충전할 수 있고, 1시간에 70% 가량 충전이 가능하다.

군은 충전기 보급을 통해 외출 시 배터리 방전에 따른 불안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장애인의 실질적 이동권 보장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 등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홍조 기자 khj@

### 익산시, '음식점 위생등급제' 30일까지 접수

익산시는 위생수준 향상과 식중독 예방,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받는다.

신청 대상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중 1년 이내 행정처분 이력이 없고 무허가 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업소이다.

위생등급제는 영업자가 자율로 매우우수(★★★★), 우수(★★★), 좋음(★★)의 등급 중 희망하는 위생등급 신청하면 컨설팅 대행업체가 2~3회 정도 방문해 시설을 보완하고, 평가 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현장 평가 등을 거쳐 위

생등급을 지정한다.

위생등급 지정업소에는 위생등급 표시판이 교부되며 시 홈페이지 통한 홍보, 2년간 출입검사 면제,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설비 개보수 용자지원, 위생용품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김윤숙 익산시 위생과장은 "위생등급제가 정착되면 소비자는 깨끗한 음식점을 선택할 수 있고, 영업자는 위생적인 업소라는 이미지를 홍보해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 남원시, 공공기관·관광지 31곳 무료 와이파이 구축

남원시는 연말까지 공공기관과 관광지 31곳에 무료 와이파이존을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남원지역 무료 와이파이존은 모두 115곳으로 늘게 된다.

와이파이존이 새로 구축되는 곳은 도서관, 보건소, 버스정류장, 춘향테마파크 등이다.

춘향테마파크, 향공우추천문대 등 관

광지 2곳에는 서둘러 다음 달 중순부터 와이파이 서비스한다.

앞서 시는 지난 1일부터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모든 시내버스로 확대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시민과 관광객이 통신비 부담 없이 편리하게 무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와이파이 서비스를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원=백성 기자 bs8787@

그린알로에

# 그린궁 HOME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홈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